

Assises

POUR l'ÉCOSOCIALISME

생태사회주의를위한연석회의선언(2013.2)

2002년 생태사회주의국제선언과 2009년 벨렘생태사회주의선언에 기초해 발표된 선언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www.ecosocialisme.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태사회주의란 무엇인가

- 1) 구체적이고 급진적인 대안** : 생태사회주의는 공상이 아니다. 지금 시대의 생산방식과 소비방식은 인간과 환경을 황폐화시키며 인류를 이중적 위기로 내몰았다. 생태사회주의는 이에 대한 인간적인 대답이며 근본적 원인에 접근하는 급진적이고 정치적인 사상이고 행동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본주의와 생산만능주의에 반대해 투쟁한다.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이윤의 새로운 원천으로 만들기 위해 상품화를 강요한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원인이며 이러한 세계화는 사회적·환경적 덤핑, 오염과 생태계파괴를 초래한다. 생산만능주의는 천연자원을 고갈시키고 기후를 변화시키며 필연적으로 소비지상주의를 낳는다. 대표적인 예로 절대 만족될 수 없는 욕구를 부추기는 쏟아지는 광고를 들 수 있다. 우리는 세계화된 금융과 두제정치, 초국적자본의 압력에 굴종하는 정부들,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이데올로기, 녹색자본주의가 현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본다. 이에 맞서 생태사회주의는 위기에서 벗어나 인류공공의 이익을 담보하는 대안이다. 이는 지체 없이 부를 분배하고 필요에 따른 절제하는 새로운 경제제도를 건설하며 기후와 생태계,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 2) 공공의 이익이라는 패러다임** : 생태주의라는 패러다임은 민주주의, 사회평등, 정교분리원칙, 페미니즘을 전제로 한다. 인류공공의 이익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게 좋은 것만을 이야기할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고유한 권리의 보편성과 의무를 포함한 시민권, 공화국을 만든다. 생태정치와 보편적인 사회적 공화국의 합리적 연결 속에서 나온 이론이 바로 생태사회주의다. 인간을 중심에 두고 보편성을 띄며 사회주의적이고 구체적이다.
- 3) 좌파의 새로운 이론통합** : 생태사회주의는 새로운 정치계획이다. 필연적으로 반자본주의 성격을 띄는 생태주의와 생산만능주의 논리에서 벗어난 사회주의의 만남이다. 우리에게 자본주의 이후 대안사회 모색이 필요하다. 해방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사라지는 진보적 사회를 위한 투쟁속에서 만들어진다. 생태사회주의계획은 인간의 필요와 지구의 한계 두 가지를 다 본다. 생산의 사회적 효용성과 우리의 소비방식, 실제로 필요한 양, 생산방식에 대한 재접근이 필요하다.
- 4) 사회주의의 재탄생** : 사회주의는 언제나 인류해방을 목표로 해왔다. 이는 부의 분배와 권력의 민주화, 모든 사람의 교육을 통해 진행된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과 유통의 구조뿐 아니라 생산의 내용과 소비방식 또한 재정립 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 전반에 대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생태계보호전망속에서 만들어진 인류진보의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생태주의적 계획과 시민혁명을 들 수 있다.
- 5) 녹색자본주의의 거짓과 환경주의의 위험성** : 우리의 생태주의는 사회적 성격을 띄며 역사적 투쟁의 연장선에 있다. 우리는 자유주의와 양립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생태주의적 관점을 반대하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명분하에 더 많은 이윤을 찾고 제국주의적 야욕을 실현하려는 <녹색자본주의>를 규탄한다. 우리는 자본주의구조의 생산과 소비 방식에 대한 비판 없이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생태주의자들의 발언에 반대하며 민중들과 격리된 세계화된 경제구조에 대한 진지한 비판 없는 관점을 거부한다. 우리의 생태주의는 경제를 포함해 구조적 문제 속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접근하며 사회투쟁을 통해 모든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만들어간다.
- 6) 사민주의의 한계** : 우리는 GDP 성장과 소비촉진을 통한 부의 재분배를 주장하는 사민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반대한다.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부를 지체 없이 즉시 분배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GDP는 사회적 행복은 반영하지 않은 기준이다. 모든 국민이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7) 필요에 기반한 경제구조** : 생태사회주의는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경제와 생산구조를 지향

한다. 우리는 시장에 쏟아내기 위해 어떤 조건에서든 아무렇게나 많이 생산해야 한다는 생산만능주의적 논리를 거부한다.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시스템은 더 빠르게 고장나는 제품들을 우리에게 팔아 치운다. 쓰레기를 만들고 낭비를 일삼는 이 문명을 어떻게 더 보고 있을 것인가. 실제로 필요한 양에 따라 생산하는 경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생태주의적 계획경제다.

- 8) **기성이론과의 단절** : 생태사회주의는 개인 이익을 위한 독재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거부한다. 우리는 생산수단의 사회적소유를 지향하며 대안으로 자립경영과 협동조합사회연대경제를 제안한다.
- 9) **다른 방식의 생산 Produire autrement.** : 우리의 생산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편은 <4R>에 기반을 두고 있다. 1)활동의 지역간이동(relocalisation), 2)생태적 재산업화(reindustrialisation), 3)산업도구의 재변환(reconversion) 4)일의 재분배(redistribution). 충족되지 못한 많은 요구들이 존재한다. 실업의 증가와 사회적 위기 속에서 흔히 일자리창출의 문제가 환경보존과 배치된다고 보는 관점이 존재하는데 이는 불합리하다. 오늘 우리는 자유방임주의가 초래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보고 있다. 지역간이동과 생태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바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새로운 형태로 변화할 것이다.
- 10) **정치적 지침, <녹색률>** : <녹색률>은 우리경제의 중요한 기준이다. 이는 세계은행, IMF, 유럽위원회, 유럽중앙은행이 강요하는 긴축정책의 <황금률>을 대체한다. 이를 통해 인류와 생태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의식이 생겨나고 생태적 부채는 사라진다.
- 11) **투쟁의 통합** : 우리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정치활동을 해야한다. 즉 사람들을 모으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미 동의한 사람들끼리만 활동하는 것에 만족하거나 심지어 서로를 핏줄고 비방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사회환경변화의 주체로 저항하는 일하는 노동자들의 편에, 사회에서 배제된 이들의 편에 서있다. 생태적 변환은 이들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양극화된 사회에서 우리의 적은 노동자나 연구자가 사익을 추구하는 은행, 초국적기업, 주주다.
- 12) **투쟁하고 저항하고 창조하라** : 생태주의혁명은 저항하는 이들과 함께 투쟁하는 속에서 이루어진다. 깨어있는 시민들은 계속해서 시험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간다. 로컬푸드, 농민단체, 식량생산벨트, 토양황폐화에 반대하는 활동, 변화하는 지역도시, 노동자들이 경영하는 공장, 지역교환시스템, 시민저축은행, 대안화폐, 공동주택, 카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생태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민중의 의원은 언행일치를 해야한다. 광고금지, 수도의 재공영화, 공공서비스무상화의 확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진보세력에게 활력을 줄 것이다..
- 13) **생태주의적 계획경제의 실현** : 생태주의적 계획경제이 실현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시민, 노동자, 이용자가 스스로 감독하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 문제는 산업, 연구, 기술발전 그 자체가 아니라 선택의 자유와 시민들의 감독이 없는 것이 문제다. 시민혁명은 이러한 감독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하다.
- 14) **헌법이 없으면 평등도 사회적 공화국도 없다 !** : 환경교육을 포함하는 공립학교들을 통해 공동의 문화가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사회계약의 동의를 얻고 개별적, 집단적 해방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생태사회주의는 국가와 공동체, 공공서비스의 역할을 인정한다. 단절된 것들을 계획하고 해방된 사회를 건설하며 모두의 기본권이 존중되는 평등을 담보하는 것이다. 이는 제헌의회라는 수단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 15) **문화투쟁** : 생태사회주의는 민중교육을 통한 사상투쟁을 수반한다. 다루기 쉬운 개인소비자가 이른바 전문가들의 견해에 복종하고 이 전문가들은 해롭고 불필요한 생산을 촉진시키며 지구 반대편에서 비인간적 노동착취와 환경파괴를 통해 만들어진 생상품 소비를 강요하는 현실을 규탄한다. 자유주의의 모순된 정책과 잘못된 신조어에 반대한다. 노동비용이 되어버린 노동의 가치, 사회적 부담금이 되어버린 사회참여금, 평화를 수호하는 사람들로 불리는 공권력, 보호카메라가 되어버린 감시카메라 그리고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는 순수한 에너지자원인 핵에너지를 들 수 있다.
- 16) **자유주의협정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 우리는 WTO를 통해 체결된 많은 협정들, FTA, 경제협력이 만들어내는 천연자원고갈과 남반구민중들의 착취, 이른바 발전된 국가들에서의 사회적덤핑이 일어나는 상황을 규탄한다.
- 17) **국제주의적이고 보편적인 투쟁** : 인간의 삶과 공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생태계만이 존재한다. 지구 어딘가에서 행해지는 일은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친다. 생태사회주의는 이른바 북반구 국가들과 WTO, IMF, 세계은행이 남반구에 벌인 책임을 인정한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벌어지는 대안운동을 지지하며 참고한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시민혁명들, 아랍의 봄, 아르헨티나의 부채 없애기 운동, 아이슬란드와 베네수엘라의 제언의회 경험, 에콰도르의 야수니운동 등이 있다. 투쟁속에서 얻은 노하우와 경험, 방법은 공유되어야 한다. 생태사회주의계획은 우리시대의 시

민혁명을 목표로 하는 세계포럼을 통해 알려져야 한다. .

- 18) 생태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시민혁명** : 자본주의생산구조는 단순히 선거를 통해서 또는 위로부터의 결정을 통해 바뀌지 않는다. 비례대표제, 동수제, 경직금지 등의 급진적 개혁을 통해 민중들 스스로가 대표자가 되고 민중을 대표하는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통한 민중주권의 실현을 의미한다. 다수의 생태사회주의자 의원들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중운동과 함께 활동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여성과 남성들을 통한 정치시민적 주도권의 환수를 바로 시민혁명이라 부른다. 혁명인 이유는 소유형태를 바꾸고 구조를 변화시키며 사회와 경제를 조직하는 법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을 바꾸기 때문이다. 시민적인 이유는 한 특권층이나 개인이 아니라 보편선거와 정치다원화를 통해 모두에게 권력을 주기 때문이다. 민중에게는 문제가 없다. 해결책이 있을 뿐이다. 오늘날 위기의 가장 큰 안타까움이 있다면 그것은 미래로 향하는 다른 길을 보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생태사회주의가 그 길이 될 수도 있다.